

지방분권 촉구 위한 한 목소리

익산시 - 익산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서명식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을)와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는 지난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의 지역 사회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소병홍 시의장 시의원 및 익산시 간부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방분권 헌법 주요 개정안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 확립,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원·재정권 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소병홍 시의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모든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명시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방 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도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2월말까지 진행된다.

/익산=정양원기자

생산현장 생생한 목소리 청취 · 소통

정현을 익산시장, 동양물산기업 방문 현장행정 펼쳐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2일 신년을 맞이하여 관내 왕궁농공단지 내 입주한 동양물산기업(주)를 방문하여 김희용 회장과 면담하고 생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정 시장은 이번 현장행정에서 시에 투자하여 양질의 고용창출과 인구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방침에 적극 협조한 동양물산 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구내식당을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오찬에서 서로 격의 없이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근로 환경개선 및 최저임금 상승 등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양물산 관계자는 “공장 출입도로 개선 및 인근 버스승강장 설치 등 익산시의 애로사항 처리에 감사드립니다.”며, “신규 근로자 채용시 관내 대학 출신과 익산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체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익산시는 지속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해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현장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굴지의 농기계 종합회사인 동양물산기업(주)는 지난 2010년 경남 창원에서 익산으로 이전하여 익산 왕궁농공단지 116천㎡의 부지에 500여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8천㎡의 공장에서 300여 명의 근로자가 트랙터, 콤팩트 등 농업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성사 진흥기계 등 여러 협력업체가 동반 이전에 관련 산업 발전은 물론 북미, 동유럽 등지로 수출 다변화를 꾀하면서 향후 추가투자 및 연관업체의 익산 투자가 기대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최대 336만원 지원

군산시는 석면 비산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국비를 포함 총 3억 3600만원을 투자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오는 28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신청서와 건축물 위치도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지 실사를 거쳐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건축물 노후 정도, 실거주 여부 및 거주인원,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철거비용과 폐석면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한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1

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기자

군산시, 국가관리 병해충 사전방제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가관리 병해충인 화상병과 자두곰보병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방제약제를 과수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화상병이란 주로 개화기에 진딧물이나 벌 같은 곤충에 의해 전염되는 세균성 병으로, 병이 발생한 나무는 잎이 시들고 검게 변해 말라 죽는다. 이 병은 한번 걸리게 되면 과수원을 폐원할 정도다.

또한 자두곰보병은 자두, 살구, 복숭아, 체리 등 핵과류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병으로, 잎과 과실에 심한 모자이크와 원형반점이 발생하며 감염된 나무는 수확량이 75~100%까지 감소하는 전염병이다.

사전방제사업 대상농가는 사과, 배와 자두, 살구, 복숭아, 체리 등 핵과류 과수를 0.1ha이상 재배하고 있는 농가이며, 사업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해당지역 농민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현조 기술보급과장은 “한번 걸리면 치료가 되지 않는 화상병과 곰보병의 완전제거를 위하여 과수재배농가는 반드시 방제약제를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관기자

군산시 숙련기술인 채용박람회 내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 열어

군산시는 오는 6일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상설채용관에서 2018년 군산시 숙련기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구인기업과 구직자간의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의 장을 마련하고 채용정보관의 일자리관련기관 전문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주)동우컴퓨터이, (주)부일, (주)HR 가온누리 등 군산시 및 인근 우수 중견, 중소기업 등 30개사가 참여하여 13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로 직업선호도 검사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관, 면접 이미지 메이킹관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만도 운영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채용박람회 개최로 조선업 퇴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구직자에게도 폭넓은 취업기회와 양질의 일자리 정보가 제공되고, 중소기업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희망자는 이력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고, 박람회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잡코리아 전북지사(☎063-282-3411)로 하면 된다.

/군산=김판관기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중국 허북성 동문회 창립대회가 중국 허북성 출신 유학생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석가장 경주국제호텔에서 개최됐다.

동문 간 화합의 시간 원광대, 중국 허북성 동문회 창립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중국 허북성 동문회 창립대회가 최근 석가장 경주국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립대회는 중국 허북성 출신 유학생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 간 교류를 통해 결속을 다졌다.

특히 중국 허북성지질대학 왕소평 부총장과 형수대학 송경희 부총장을 비롯해 허북성법대학 및 허북성출대학 국제처장 등 교류대학에서 참석해 동문회 창립을 축하했으며, 정정권 부총장과 정수진 국제교류처장 등 원광대에서 참석한 관계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8년까지 원광대에서 수학한 허북성 동문회 이종개 교수가 추대됐으며, 이종개 회장은 “원광대 중국 동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허북성 동문과 연대해서 모교발전 및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대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중국 동문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덕진도자대학 념강 총장이 의뢰한 중국 허북성 동문회 창립에 대학 총장에 취임하는 등 중국권 부총장과 정수진 국제교류처장 등 원광대에서 참석한 관계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정양원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UN제5사무국유치국민연합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와 UN제5사무국유치국민연합(공동대표 서성원, 이영태)이 최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과 관계자, UN제5사무국유치국민연합 서성원 대표와 김홍관 자문위원(주식회사 캄스 노동조합위원장), 이희성 자문위원(변호사), 유승재 중앙위원(주식회사 페르소나SW 대표이사), 오광호 중앙위원(주식회사 한국테크 상무)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양측은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를 위한 홍보와 국민 동침을 함께 유도하고 세미나 등 관련 행사의 적극 참여, 프로젝트 공동 추진과 정보 교류,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UN제5사무국유치국민연합은 UN 제5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유치된다면 북핵 저지와 아시아-태평양지역 군비 축소 비무장지대 UN평화공원 조성, 국가 간 경제문제 해결 등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은 “이번 UN제5사무국유치국민연합과의 협약을 계기로 사무국 한국 유치 활동과 관련 일자리 창출 문제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어린이 행복돌 건강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향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